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6. 여름(Summer)

사소함의 가치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
나무 밑의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야.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해.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두에게 사랑 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이야.
나 혼자만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어떤 이는 큰 숲이 되고 나서
그 숲을 이뤄준 작은 존재들을 잊은 채 살아가.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 시작되는데 말이야.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을 테고,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사소한 것의 위대함을 알아야 한다.

- 전승환 / '나에게 고맙다' 중에서 -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소등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의 모든 불을 끄는 순간, 문득 어린 시절 방공호에 머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방공호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당시 폭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던 곳입니다. 주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 공간으로, 눅눅하고 어두웠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기에, 국민학교 시절 공습 경보가 울리면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두려움과 함께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아이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평화의 불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꾸준히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원자 여러분 각 가정에 예수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주교 시흥디오구 시정시책부
환경시책위원회 하날·땅·물·벗

박 빅토리아 수녀 드림.



눈물, 은총, 감사

3월 25일, 물왕동 한국 순교자 공동체에서 다섯 분의 수녀님께서 수도생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서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응답했던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새하얀 당신의 옷을 입혀 주시고, 매일 매 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어느덧 25주년이 되었습니다.



홍애선 테클라 수녀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밝게 빛나는 청량하고 향기로운 바람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둠이 깊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은은한 당신의 사랑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은경축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느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동반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짧은 체험을 글로 남깁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수도 여정의 삶 또한 그러하겠지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삶의 갈림길에서, 하느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경축과 금경축 등, 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수련기와 유기서원기를 지나 종신서원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성을 받는 동안 하느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FMM의 정신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통합하여 하나로 일치하고자 애써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저는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수련기에는 하느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땅을 파듯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았던 시간이었고, 유기서원기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누고 또 나누도록 재촉받던 시간이었



습니다. 그리고 종신서원 15년을 살아온 지금은, 하느님의 정원으로 초대받아 그 정원을 가꾸며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정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숨을 쉬며, 일치와 사랑 안에서 변모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FMM 자매들, 특히 동기 자매들과 친밀함을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의지하며 걸 어가는 이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며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정원이 완성되는 그날까 지 성실히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하느님 앞에서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감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두 손 모아 주님께 청합니다. 이 사순 시기에, 희생과 고통, 슬픔과 기쁨, 은총과 감사의 눈물이 하나로 모여 우리가 마시는 사랑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FMM 후원자가 된 계기는.. (함께 맞추는 빵 퍼즐)

저는 현재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본당에 교육관 건립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부채가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2차 봉헌과 기부금을 받아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었는데, 워낙 고액이라 언제 다 상환할지 막막했습니다. 신부님과 신자들도 모두 지쳐가는 분위기에서 저는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 가족 약속기 (8기)
안혜정 클라라

당연히 ‘팡’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복권으로 요행을 바라는 일이 하느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로또를 샀던 일이 얼마나 교만했던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보면, 어린 소년이 가져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의 군중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로또의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이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도를 통해 예수님께 건넨 그 소년의 마음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저는 작은 돈이지만 FMM의 후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이 금액이 퍼즐 조각이 되어 세상 어느 어두운 곳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협력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라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퍼줄 판에 놓으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큰 기적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아침! 교육관의 대출금은 신자들이 몇 년 동안 봉헌하여 절반을 갚고, 나머지는 성당 옆에 예상치 못했던 건물이 들어서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예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3월 27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프란치스칸 JPIC 기후행동 피케팅(picketing)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60여 명의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시민들의 의식 전환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붐비는 시간에 피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이 기후행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행동(Climate Action)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활 방식 전환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절약: 냉난방 온도 조절,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친환경 교통: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전기차 이용

생활 속 실천: 다회용기 사용, 채식 위주 식단, 일회용품 줄이기

자원 순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중고 거래

제도 참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활용

기후행동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바로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나우(now, 나+친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네!”

페로에 아일랜드에서 23년 동안 해외선교를 하다 돌아와서 그 동안 엄청 바뀌어 있는 한국과 그 문화에 적응하느라, 안팎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다. 2024년 다시 한국에 발을 딛기 전까지 나의 살아왔던 삶은 강그리 멀리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을까? 가리봉동 수녀원 주방에 파견을 받아 큰 살림살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어둡고 어지러워 보였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자매들이 있어,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아 갈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린다.



이연희 플르렌스 수녀

거의 1년을 가리봉에서 살고 떠날 때, 인사로 했던 말이 있다. ‘이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애 쓰기 보다는 그 불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이다. 그런 후 영광본당에 전례수녀로 소임을 받아 왔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아 자꾸 내뱉는 말이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네’이다. 그리고 인생살이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 일은 이 일대로, 저 일은 저 일대로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으니, 더 낫다느니, 더 힘들다느니,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사를 마치고 나면 초 정리 하는 게 큰 일 중의 하나이고 시간도 걸린다. 초에 불을 켜 놓은 채 깎고, 채우고, 다듬기를 하다 보면, 조각가가 되어있는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어! 내가 지금 촛불과 놀고 있네? 가리봉 떠날 적 말했던 불놀이를 지금 하고 있네?’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본당소임도 처음이다. 사람이 많아 관계안에서 지켜야 할 선, 두어야 할 거리, 익혀야 할 몸가짐 등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는데 몇 모르고 그냥 지나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한다. 이게 말로만 듣던 본당 소임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부분임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된다.

복사들과의 만남도 새롭다. 기존의 5명과 작년에 첫 영성체를 한 3,4학년 두 여자 아이들이 주일미사 두 번 선배들 옆에서 보기만 한 후에 성삼일 전례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복사 모임 때 제 2복사의 임무를 선배들에게 한번 배웠지만 홀로 서야 하는 거였다. 성 목요일의 길고 복잡한 전례를 미사 한시간 전에 신부님과 함께 연습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던 3학년 신입 복사가 몹시 걱정이 되었지만 근처에 서 있는 다른 복사들과 눈을 맞추어가며 해냈다. 성금요일엔 그 아이가 내 옆에 앉아 수난예식에 참여하는 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눈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성 목요일 복사 서는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주일미사 말고 언제 또 그런 큰 행사가 있나요? 그런 때 저 좀 써주세요!”



부활성야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서 복사들 모두에게 자신들의 세례명이 들어간 팔지를 모든 신자들 앞에서 선물로 주셨다. 부활 대축일 낮 미사의 제 2복사를 혼자 서야 하는 4학년 신입복사의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아이는 복사 서는 걸 그만두고 싶었는데 전날 저녁 선물까지 받았으니 안 할 수도 없어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신부님께 받은 이 팔지를 보아야겠다”고 말했다 한다.

쉬운 거 하나 없는 세상살이에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묘하기 그지 없다!!!



생명과 희망을 위한 봉사

스페인에 파견되어 살아온 지도 어느덧 17년이 되어 간다. 참 빠르게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물음과 함께 “이곳에서 얼마나 지냈느냐”는 질문이다. 그런데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기간을 대답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내 스페인어 실력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가능하면



오윤정 헬레나 수녀
마드리드 (스페인)

지낸 시간을 조금 짧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작은 자존심은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갔다. 언어의 다름과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오는 모든 순간마다 하느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고, 그 자리를 작음과 겸손을 배우는 마음으로 채워 주셨다. 또한 감사와 보람,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품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나의 눈을 열어 주신다.

마드리드에 있는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필요와 민원을 담당하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되어 간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 돌아보면 새삼 마음이 먹먹해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병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마음에까지 이르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부족했던 시간들을 지나 어느새 긴 세월을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함께 견뎌 주고 기다려 주신 병원 책임자 수녀님과 함께 소임하는 수녀님들, 그리고 언제나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걸어들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타지에서 살아오며, 처음에는 내일이 없는 일들까지도 해내려고 했었고, 잘해 보고 싶어 참 많이 애썼던 것 같다.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시간들에서 조금씩 내가 기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동시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이 모든 시간들이 내가 지나와야 했던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병원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참 작고 미미하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특별히 환자와 가족들의 불평과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몫들을 기꺼이 내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선교이다. 모든 순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여기 있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근본적인 자세를 기억하며, 창립150주년을 준비하는 본회안의 모든 자매들과 일치한다, “HEME AQUÍ”

올해 우리 병원은 현존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기념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내딛도록 초대받는 의미 있는 시간인 듯하다. 또한 사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우리의 마리 드 라 빠시옹의 정신과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숨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창립 어머니의 말씀



사랑께서는 성체가 되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나는 죄로 인 하여 파괴된 질서를 바로잡도록, 즉 하느님은 하느님의 자리 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 법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룩하신 제물의 자기 소멸 앞에서 하늘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NS 132)



2026년 후원자의 날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6년 10월 17일(토) 오전 11시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내용: 미사 후 점심식사

참석자: FMM 후원자님들, 수녀님들, 가족·친지들 등

준비물: 함께하고자하는 따뜻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

** 오시는 분들은 참석 여부를 후원회 연락처로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하시어 나눔의 기쁨을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010-2821-8174)

문의사항은 담당자 박 빅토리아 수녀에게 연락 주십시오.

** 차량은 주차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	김상태	김진식	박순옥	손은영	유채영	이은정	정미영	최원단
(주)가나스틸	김셋별	김채송	박순자	손은주	유춘성	이은주	정성민	최원철
(주)인동FN	김선식	김철형	박승민	송경수	유혜정	이임수송재용	정소영	최은실
(주)퓨처로직스	김선옥	김추양	박연애	송비아	유홍순	이재명	정영숙	최인석
가정동성당	김성미신소희	김춘자	박원서	송순이	유희숙	이재영	정은우	최일순
가좌동성당	김성애	김해자	박윤선	송승윤김서현	유희경	이재욱	정은희	최재석
강경아	김성용	김현숙최지명	박은정	송정애	육동배	이정란최윤	정인순	최정선윤각의
강미현	김성원	김현주	박은희	송채영	윤계남	이정민	정재훈정지호	최지은
강숙자	김성현	김현희	박재용	송혜경	윤규현	이정숙	정진명	최효순
강순애	김수경	김혜정	박정순임현서	순교성인성당	윤명자	이정원	정진숙	추영숙김주년
강신연	김수영	김호성박정식	박정연	신동규	윤명희	이정준	정찬영	추종현
강연호	김숙경	김호식	박주형	신문경	윤문섭문선미	이정하	정혜경	태계남
강원석	김순철	김호진	박준우	신승일	윤미숙	이정희	정희파키스탄	하봉남
강향주	김애자	김희재	박진	신아영	윤보미	이종욱	조건희최취선	하옥경
검암성당	김에리사	나사협회	박찬순	신용숙	윤봉수	이종윤	조경득	한규영
고성철	김영순	나숙희	박찬주	신유라	윤순희	이주남	조광태	한기훈
고승현	김영옥	나정순	박찬희강동연	신정성당	윤옥	이주호	조규진조남섭	한미정
고승희	김영운손연희	남가경	박태분최민정	신주선신유경	윤임순	이지연	조급자	한상국
고은하	김영자	남보라홍은숙	박해필	신주화	윤정미	이지인	조봉레이성호	한순옥
고재영	김영재허갑수	남옥자문주명	박현애	신희식	윤정희	이진욱	조상위	한순희
고지영	김영주	노미경	박현희	안미령	윤한희	이재화	조석금	한영미
고혜란	김영준김정애	노병덕노민규	박희수	안성민이재익	이갑수	이태금	조성자	한옥선
공창용	김영춘	노봉근	박효정	안양금	이경재	이필단	조순옥	한은주
공해용	김영한	노석순	박희순	안정임정부심	이계호	이항남	조영주	한진경
구옹희	김옥림	노석심	반종현	양기홍	이광희	이해령	조원균	한효정권오현
권고은	김옥주	노인숙	방웅	양미경	이금용	이해일	조인주	함광훈
권순영	김용수	노정애	방진	양윤석	이남순	이현재	조재호	허순자
권순익	김용식	단체지원금	배수정	양윤재	이덕호	이현준이창석	조정희	허재수장효선
권영오	김용자윤소라	당효준이순희	배윤숙	양종한	이동준	이홍식	조진상안자영	허정자
권정신	김용주	루게치오형제회	배장열	양천애덕회	이동현	이화경	조현주	현경미
금부동	김용준	류정이	배철희	여은지	이명희	인용석	조혜영	홍원숙
금창호	김웅기	마선안	백미자	연수성당	이미란	인천교구	조화숙	홍말숙
기중현	김원란	마전성당	백미정	연희동성당	이민희	인혜정	조희공	홍명숙
김경순	김원숙	명영희	백성대	영적가족	이병철	임승옥	조희무	홍미경
김경재	김윤기	모틀초경	버닝하트이대	영적가족8기	이상문	임지원	주성미	홍민선
김경희	김윤철	문경애	변복자	영준금속	이상욱	임혜숙	지정희	홍민희
김광기	김인희	문미형	변태식	오복연	이상호	임호	진숙인	홍성란
김귀선미리암	김잔디	문상원	부산아름	오소영	이선영	장민정	찬미	홍세아
김귀선스테파니	김재욱	문성식	사랑나무치과	오숙자	이성구	장세욱	찬미예수님	홍승희
김기정	김경매박치현	문성재	서덕순서득순	오승훈	이성남	장영문	채성훈	홍영용
김나린	김정민	문준식	서명자	오영희	이슬기	장원태	천명덕	홍익기
김나현	김정숙	민들레복지	서춘자	오옥형최민규	이승옥	장현아	천정원	홍정임
김남기김민정	김정애	민정웅	서태진	우영희	이승은	전순임	청라성당	홍종길
김덕철	김정웅	박금난	서향란	원당동성당	이승재	전순자	최규범	황경희
김도상	김정임	박기선	서혜경	원세경	이승희	전순희	최금영	황세원
김도영	김정택	박문주	서혜석	유경혜	이안나	전은희	최명숙	황영곤
김동현	김정화	박병옥송덕규	석남성당	유미경	이연실	전주란	최미양	황윤서임이데레
김득수	김종연	박상미	석남재속회	유병춘	이영복	전총엽	최민자	황의택
김득현	김준희	박선정	석상령	유성재	이영애	전혜향	최신애	황인복
김미리	김지선	박성준	성아가다(사)	유수민	이옥자	전화월	최성순	황혜숙
김민규	김지선	박성현	성영신	유영재	이원순	정강호	최숙규	
김별	김지영	박소연	성영주	유은분	이윤신	정경원	최순애	
김봉연	김지은	박소정	세계청년조직위	유은정	이윤옥	정경필	최애란	
김봉현	김지혜	박수민	소재록	유주영	이은미	정동락	최영남	
김상률	김진숙	박수인	손순덕	유주영이성혜	이은수	정미경	최영운	